

영화 <양산도> 속 명인 김윤덕의 전통가락 연구

- 서사구조와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

김민지*·박혜리나**

-
1. 서론
 2. 김윤덕의 삶과 예술세계
 3. 영화 <양산도>
 4. 결론
-

1. 서론

김윤덕(1918~1978)은 민속음악 전반에 있어 전 영역을 아우르고 거문고와 풍물, 가야금, 작곡 등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로 생애 활동 기록을 남겼다. 1968년 가야금산조 부문 첫 중요무형문화재(現,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당대 최고의 가야금 연주자 성금연¹⁾과 함께 지

* 제1저자, 경북대 국악학과 강사

** 교신저자,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

1) 성금연(1923~1986)은 근대 가야금 명인 중 뛰어난 기량으로 꼽히며 근대 가야금 연주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활동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김윤덕과 함께 가야금산조 분야 최초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해금 산조의 명인인 지영희(池映熙)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권은경(2016), 「성금연 명인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1955~1975년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57, 한국음악사학회, 90쪽.

정되었다.²⁾ 근대 한국음악사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민속 음악의 뿌리를 지키고 가야금산조의 명맥을 이어온 중요한 인물들은 ‘~류’ 라는 자신의 허튼가락을 엮어 하나의 틀을 가진 음악으로 완성해갔는데 그 중 한 명인 김윤덕은 가야금산조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의 가락은 초기 가야금산조의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5년 이후 새로운 산조의 류파 공백과 여러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김윤덕-이영희 직계 전수로 이어져 현재까지 정통성과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³⁾ 또한, 김윤덕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민속악뿐만 아니라 풍류음악, 영화음악, 무용음악 등 경계 없이 음악작업의 흔적을 남겼으며 특히 수많은 연주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 온 대표적인 근대 명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김윤덕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1989년 논문을 시작으로 100여개의 학술적 성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첫째, 그가 가야금과 거문고에 능했기 때문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를 형식적, 음악적으로 비교하여 선율간의 유사성을 장단별로 살펴본 연구⁴⁾들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최옥삼,

2) 1945년 해방 이후 제도적으로 무너졌던 우리 음악의 제도적 확립과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생겨난 문화재 보호제도이다. 1965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보유자를 인정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잘 보존하고 문화적 소산으로서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다.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또한 2021년 6월 21일 제정·공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서 또한 지정번호는 번호에 따른 문화재 가치 서열화 문제 해소와 국가무형문화재 자체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에 지정번호를 노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법제처 홈페이지, 법률 18157호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04.17.

3)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가야금산조의 유파는 김죽파류, 강태홍류, 성금연류, 최옥삼류, 김윤덕류, 황병기류, 김병효류 등이 있으며 대학 국악과 입시시험과 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입단시험에도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야금 연주자라면 반드시 연주해야 할 연주곡으로 꼽히고 있다.

박상근, 김죽과, 황병기, 정남희 등 ‘다른 가야금 류파와의 비교 연구’⁵⁾가 주를 이루었다. 분석방법은 김윤덕류의 전승계보 및 전승과정에 기초하여 김창조나 한숙구 계열의 다른 류파들과의 선율적 비교로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셋째는 ‘향제줄퐁류’에 관한 연구로 산조 이외의 김윤덕의 음악적 분석능력을 언급하며 김윤덕 전승 향제줄퐁류에 대한 음악적 분석⁶⁾들이 있었다. 국립국악원에서 전승되는 줄퐁류와 지방의 율객들이 퐁류방에서 연주하던 김윤덕 전승 향제줄퐁류를 비교하여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확립화된 가락의 전승보다는 지역별, 인물 개인의 음악성이 모두 다르게 표현됨을 밝혔다. 이들은 줄퐁류가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전승되어야 함을 존중하면서 김윤덕 전승의 줄퐁류는 비교적 담백하면서 다른 류파에 비해 꾸밈음과 농현이 많지 않아 가치

4) 장지현(2016), 「김윤덕 가야금과 거문고 줄퐁류의 선율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유리(2009),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신수연(201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유영주(2012), 「거문고산조의 한갑득류와 임석운·김윤덕·김용실류 선율 비교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박소라(2013), 「김윤덕류 가야금, 거문고산조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5) 이예량(2020), 「서공철류·김윤덕류·정남희계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선율 비교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안민영(2018), 「김윤덕류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장단 음악형태 연구」, 세한대 석사논문; 김하은(2018), 「가야금산조 중 세산조시 형성과정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김혜림(2017),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신수연(201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정부경(2016), 「장월중선과 김윤덕 가야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박승희(2014), 「가야금산조 탈령계 분석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신민서(2016), 「김죽과·김윤덕류의 전승과정에 나타난 김창조계 가야금산조의 구성 양상」, 이화여대 박사논문.

6) 홍은주(2009), 「김윤덕의 계면가락도드리 가야금 선율 연구」, 『한국전통음악학』10, 한국전통음악학회, 327-352쪽; 장지현(2016), 「김윤덕 가야금과 거문고 줄퐁류의 선율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신미란(2004), 「김윤덕 전승 향제줄퐁류의 율퐁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김성민(2010), 「심상건·강태홍·김죽과·김윤덕·성금연 줄퐁류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강태경(2014), 「줄퐁류 타령 군악의 거문고 가락 비교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가 높다라고 하였다.⁷⁾ 이렇듯 ‘김윤덕’의 음악에 대한 높은 가치와 예술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나 주제 면에서는 ‘가야금산조’와 ‘향제출풍류’에 대부분 국한되어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김윤덕의 문화재 지정 이후, 즉 1968년 이후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음반을 중심으로 분석되었기에 산조나 풍류 이외의 그의 음악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가락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명인들의 소중한 전통가락을 되짚어 보는 것은 앞으로 민속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정형화된 김윤덕 산조음악이 완성되기 이전의 흔적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서의 그의 음악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사라져 가고 있는 자료들의 아카이브 확보를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이다.⁸⁾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김윤덕이 문화재로 지정받기 이전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영화음악’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윤덕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한 영화 <양산도>(1955) 속 전통가락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음악세계를 이해하고 또 가야금 민속음악의 레퍼토리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방법에 기

7)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한기(1989), 「김윤덕 가야금산조의 구조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국악전공 석사논문을 시작으로 2020년도 이예량의 박사논문까지 석·박사논문 100편이 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선율과 음계를 토대로 음악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www.riss.kr> ‘김윤덕’ 검색 참조. 검색일 2022.04.18.

8) 하지만 최근 그에 대한 음악활동에 대해 살펴본 권은영(2019)의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김윤덕의 음악 활동 및 생애에 대해 구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지며 다각도의 측면에서의 전통음악가 연구의 필요성과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초하여 김윤덕의 삶과 예술세계를 살펴보겠다. 둘째, 영화<양산도>(1955)의 영상자료를 참고하여 줄거리와 장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셋째, 영화 속 등장하는 김윤덕 전통가락을 채보하여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겠다. 넷째, 그 외 영화 속 서사적 내용과 음악적 특징의 유기성에 대해 논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윤덕이 참여한 영화 <양산도> 속 가락을 채보하고 음악적으로 분석하여 영화의 서사적 진행과 음악적 특징의 유기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김윤덕의 삶과 예술세계

김윤덕(1918~1978)은 12월 21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호는 녹야(鹿野)로 너른 벌판에 사슴이 뛰어노는 듯한 느낌을 준다하여 김윤덕 명인의 호가 되었다는 일설⁹⁾이 전해지는 만큼 리듬(장단)감이 뛰어난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만 16세에 정읍에서 공립농업학교를 다닌 것으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금, 거문고, 장구, 가야금 등 여러 악기를 학습했기 때문에 한국 민속음악의 특징인 리듬(장단)에 대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정자선에게 양금과 가야금풍류를 배우기 시작하고 김광석에게 가야금 풍류를, 김용근에게 거문고풍류를 사사 받았으며¹⁰⁾ 병창은 김화동이라는 인물에게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1947년부터는 서울로 상경하여 정남희에게 가야금산조를, 한갑득에게 거문고산조를 배웠다.

9) 2021년 8월 19일(목) 늦은 7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박은아 가야금 독주회 “녹야에서 녹야를 그리다 -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의 프로그램 해설 참조.

10) 박헌봉(1968), 「김윤덕 약력」,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39호』, 문화재관리국; 신미란(2004), 「김윤덕 전승 향제줄풍류의 뒷풍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이후 국악원 문화국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국악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한 국악원의 산하단체인 국극사(남녀 혼성 창극단)에 입단하였다. 1948년부터는 국극사의 활동기록에서 김윤덕을 찾아볼 수 없으며 1950년경부터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강태홍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 받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부산에서 인연이 되어 부산극장에서 햇님 국극단¹¹⁾의 반주음악을 주로 맡았다.

1953년부터 국립국악원에 예술사로 재직했으며 1961년까지의 약 8년간의 활동기록을 남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로 활동범위를 넓혀 덕성여대를 비롯하여 1960년부터는 서울대, 국악예술학교 등 음악 교육활동에 힘을 쏟는다. 특히 민간음악을 가르치는 최초의 국악 전문교육 기관인 국악예술학교(現, 국립전통예중·고)의 설립과정에서 박귀희, 박현봉, 김소희, 한영숙, 박초월, 김인수, 김윤덕 등의 노고가 컸으며 민속음악 및 전통음악 전반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라디오 방송, 영화음악, 창극, 국악학회 발표회, 김윤덕 국악발표회 등 다방면으로 연주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1962년에는 양금 풍류보를 국문신보(자필보)로 완성하며 오선보로서의 기록과 보존을 중시하였음이 드러난다. 이밖에 1964~1966년까지 서라벌 예술대학 국악과에도 2년간 출강하였다.

1964~1975년까지는 국악예술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했고 50대 초반,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되면서 보다 많은 제자들에게 법적 보호 아래 전수활동을 이어나갔다.¹²⁾ 김윤덕은 제자들에게 교육할 때는 구전심수의 전통

11) 햇님국극단은 여성국악동호회 산하의 여성창극단으로서 해방 직후 설립된 이 단체는 창립 공연으로 ‘햇님 달님’, ‘황금패지’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1954년 햇님국극단의 내분으로 단체가 분열되면서 여성국극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창작 사극의 새로운 번영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였다. 송방송(2007), 『중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7쪽.

12) 그의 제자로는 황병기, 원한기, 이영희, 이재숙, 김승희 등이 있다.

적인 교수법을 사용하여 지도하였으나 음악을 분석하거나 스스로 공부할 때는 정간보와 서양식의 오선보를 활용하여 가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데에 굉장한 애정과 시간을 쏟았다고 알려져 있다.¹³⁾

그러나 다음 해인 1978년 2월 19일 61세로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¹⁴⁾ 작고 후에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향제줄풍류는 보유자 이영희¹⁵⁾(1938~)와 김윤덕 가야금산조 보존회에서 정통성을 잇고 있으며 또한, 그의 막내딸인 김정숙을 비롯해 황병기, 원영재, 구연우, 김선한, 정대석 등이 김윤덕의 가락을 후대에 전승하고 있다.¹⁶⁾

김윤덕은 안기옥-정남희-김윤덕 전승으로 이어져 온 음악적 예술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가야금과 거문고는 우월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수준급 연주의 경지를 생애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완성한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는 김윤덕의 장단에 대한 이해가 겹겹이 얹혀있는 것을 체계적인 운동성으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김음과 엇박을 다른 여타 류파보다 많이 사용하여 산조의 리드미컬함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남성스럽고 거침없는 음율의 정서적 체험을 이끄고 있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는 다른 산조에는 찾아볼 수 없는 ‘드렁조’ 라는

1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전수소를 개원하여 운영하면서도 발표공연과 유림순회공연, 미국순회 및 카네기홀 공연 등 국제적으로 연주활동 범위를 넓혀갔으며 풍류(자필보)에 이어서 1977년에는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보(자필보)로도 완성하게 된다.

14) 황병기(1998),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이화여대 출판부, 11쪽; 박헌봉(1968), 「김윤덕 약력」,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39호』, 문화재관리국, 49쪽;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와의 대담(2022년 5월 1일, 금토동 이영희 자택).

15) 1991년 5월 중요무형문화재(現,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042,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영희(李英熙, 1938~) 130쪽.

것이 있는데 판소리에서는 설령제, 덜령제, 호걸제 라고 부르는 이 가락은 호탕하고 거드렁거리는 느낌을 자아내야 하기 때문에 가야금으로서 연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움을 나타낸다. 또한 엷박자가 유난히 많이 나와 연주자와 고수가 장단을 맞추기 어렵지만 이를 잘 맞추면 리듬구조의 절묘한 카타르시스와 신명을 느낄 수 있다. 연주자 김윤덕을 회고¹⁷⁾하는 진술들은 다음과 같다.

“김윤덕 명인은 무대에 따라 진양, 중모리 등 뒤편 길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연주하는 것을 아주 잘했어요. 그 순간에 곡을 편곡해서 연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거든요. 장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장구를 너무 잘쳐서 가야금을 할 때는 리듬(장단)감이 부각되고 특히 다른 류파에서 느낄 수 없는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가락이라고 자주 설명하셨어요.”¹⁸⁾

“김윤덕 선생님은 정남희 선생님께 배운 가락과 강태홍 선생님의 가락 속에서 진짜 좋은 가락을 만들 줄 아는 분이셨어. 그냥 연주만 하는 분보다도 한자도 많이 아셨고 글씨도 잘 쓰시고, 가락을 짜고 채보하는 일에도 굉장히 머리가 트이셨지. 특히, 장단 구성에 맞춰서 가락을 잘 하셨어.”¹⁹⁾

17)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정효문화재단 관장역임)의 인터뷰(2017년 4월 6일)에서 밝혀진 내용 중 일부 발췌. 김호성은 김윤덕의 인연을 구술하면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의 특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었는데 ‘계면조 중심의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면이 강조되는 산조’라고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 속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와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우조, 계면조, 평조의 구분이 명확하고 흐름이 남성적이면서도 담백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정한다.

18) 연구자는 김윤덕-이영희로 전승되는 전승계보를 이어받아 전수과정을 거쳐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영희 선생께 3년 이상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영희(現. 국가무형문화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보유자)선생은 이와 같은 진술을 금토동 자택에서 자주 해주시곤 하셨다.

19) 2022년 4월 24일 오전 10~12시 이영희 선생님 자택(금토동)에서 이루어진 진술.

김윤덕 선생은 구전심수에만 힘을 쏟는 연주자가 아닌 본인의 풍류와 산조가락을 자필로 악보화 하고 음악적인 분석이 가능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연주자뿐만 아니라 예술가 혹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영화 <양산도> (1955)

3.1. 작품 소개 및 줄거리

영화 <양산도>가 개봉된 1955년은 대한민국 격동의 시기였다. 정형화되어 고립된 예술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상이나 예술을 모색하고 그리고자 했던 변화의 시기이다. 이 때 대중의 기호와 관심, 그리고 시대상을 과감하게 표현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감독이 바로, 김기영²⁰⁾이다. ²¹⁾영화의 모티브는 설화 <양축설화>²²⁾에서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유명한 음악가였던 성경린, 김윤덕, 박초월 등이 참여해 명인들 개인의 다양한 활동 행보에 있어서도 주목될만한 작업이었다.²³⁾ 영화 <양산도>는 1955년 10월 13일 개봉한 영화로, 서라벌영화공사에서 제작하였다.

20) 19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출생으로 감독으로는 치과의사 출신의 특이한 학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21) 김기영(金綺永, 1919~1998)감독의 예술세계 또한 인간의 본능, 독창적인 존재를 탐구하며 표현주의를 천착해왔는데 흥행적인 면에서도 15만 관객을 거두어 성공하였다. 이후 그의 작품들은 화제성을 낳으며 1950~1970년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꼽힌다.

22)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고대 여성들의 정절관념이 강하게 드러난 설화, 태중인연을 소중하게 여겨 뱃속부터 아이들의 혼사를 정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이 영화에서는 여성의 정조, 비극, 사랑이야기를 드러내 소재로 삼았다.

23) 권은경(2016), 「성금연 명인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1955~1975년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57, 한국음악사학회, 12쪽.

주목되는 것은 연출진 및 음악 작업의 흔적은 홍보용 인쇄물에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착오가 발견된다. 요컨대 ‘가야금·거문고 朴初月, 창 金允德’ 으로 기입되어 있거나 ‘가야금 朴初月, 거문고 金允德’으로 표기되어 있어 악기와 인물간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²⁴⁾ 이는 영화 속 음악연주가 실제²⁵⁾와 다르며 선행연구의 기록으로도 이들의 전공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기에 가야금과 거문고 김윤덕, 창 박초월로 정정한다.²⁶⁾ 영화 <양산도>의 포스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화 <양산도> 포스터²⁷⁾



이 시기에 개봉한 다른 상업영화들과는 달리 영화 포스터 앞면에 음악과 전통음악 연주를 맡은 연주자의 이름을 기입하여 홍보했으며, 이

24) 본 연구를 통해 음악 정보는 ‘가야금·거문고 金允德, 창 朴初月’ 로 바로잡는다.
 25) 김윤덕은 가야금과 거문고, 장구 등 기악에 능해 활동했던 음악가로써 ‘땀’으로 잘못 기입되어 있다.
 26) 한국영상자료원 참고문헌 소장(<https://www.koreafilm.or.kr>), 검색일 2022.07.21. ‘양산도’ 검색
 2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http://www.much.go.kr>), 검색일 2022.07.21. ‘영화 양산도’ 검색, 소장품번호 구입9132, 한국영상자료원(<https://www.koreafilm.or.kr>) 소장, 검색일 2022.07.21. ‘양산도’ 검색

를 통해 이 영화에서 음악과 연주자가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유실되어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추후 1997년 동숭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김기영의 인터뷰를 통해서 두 남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마침내 사랑을 이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²⁸⁾ 영화 <양산도>는 주인공 옥랑과 수동의 사랑이야기가 중점이 되고, 그 가운데 인간의 욕구, 정조, 비극을 감독 특유의 미학적 정취를 담아낸 작품이다.²⁹⁾ 줄거리는 크게 여섯 개의 단락³⁰⁾으로 나뉘며 영화 속 장면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영화 <양산도>의 장면들



3.2. 음악구조

여섯 개의 큰 단락 줄거리를 #① 수동과 옥랑의 만남 #② 사랑의 시작

28) 영상비평플랫폼(<https://ma-te-ri-al.online/19721795>), 금동현, 『협잡꾼 당신 - 『김기영 평전』을 위한 단편』Vol.4.

29) 금동현, 이정숙(2019), 「김기영 영화미학 형성기 연구」82, 한국문학언어학회, 367쪽.

30) #① 수동과 옥랑의 만남 #② 사랑의 시작 #③ 무령의 악행 #④ 사랑의 결실 #⑤ 수동의 죽음 #⑥ 옥랑의 거짓 결혼과 죽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무령의 악행 #④ 사랑의 결실 #⑤ 수동의 죽음 #⑥ 옥랑의 거짓 결혼과 죽음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등장하는 음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수동과 옥랑의 만남

수동의 첫 등장에서는 소박하고도 여유 있는 세마치 장단의 양산도를 관악기인 소금을 불며 등장한다. 이후 수동이 토끼를 발견하고 잡으려고 뛰어가는 장면에서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장구의 구성으로 양청도드리가 이어진다. 양청도드리는 평조선법이며 거문고가 중심이 되어 문현음과 주선율을 연주하는 유희현과 대현의 음을 계속해서 번갈아 연주된다. 줄풍류 가운데 가장 속도감이 느껴지며 경쾌한 것이 특징되는 이 곡 이후에는 양반 김진사가 등장한다. 그리고 긴장한 마을 전체의 분위기과 김진사의 여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보허자의 파생곡인 ‘송구여지곡’이 약 2~3분간 지속된다. 평조선법을 통해 양반계층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표현한다.

3.2.2. 사랑의 시작

수동과 옥랑의 둘의 감정이 깊어질 때는 민속음악 계면조로 일관하는 김윤덕의 가야금 연주가 돋보인다. 앞의 장면들에서는 기존의 전통음악(궁중음악)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민속악(민요)의 사용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독창적으로 장면을 보면서 히튼가락을 붙였으리라 사료된다. 10분 12초부터 11분 43초까지 음악이 이어지며 김윤덕이 연주한 중모리 선율은 다음 <악보 1>³¹⁾과 같다.

31) 가야금 연주의 용이를 위해 실음은 위의 <악보 1>에서 3도 위로 F이다.

<악보 1> #1. 옥랑과 수동의 만남 - 김윤덕의 가야금 허튼가락³²⁾

연주 김윤덕
채보 김민지

32) Bb본청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음은 F이다. 실음조현은 다음과 같다.

Bb M/Gm

위의 <악보 1>의 김윤덕의 가야금 가락은 총 1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은 크게 계면조로 일관하나 약간의 평조의 분위기도 포함하고 있다. 12현 가야금의 기보법³³⁾에 따라 연주에 용이하도록 채보하였음을 밝힌다. 레(실음 F)의 옥타브로 강하게 시작하는 1마디부터 본청 솔(실음 Bb)의 48마디까지 이르는 중모리 장단의 가락은 전체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33마디 3번째 박의 시김새 파-미(실음 Ab-G)를 통해 반음으로 가볍고 화평한 느낌의 평조성음을 잠깐 드러내기도 한다.

주목되는 것은 196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윤덕의 산조가 이허튼가락에 묻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허튼가락 21-28마디와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중 중모리의 8장(계면조) 8마디(두 장단)가 선율과 출현음에서 유사함을 보이는데, 당김음과 담백한 선율구성 등이 김윤덕 특유의 어법으로 드러난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훗날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영향을 주었다 볼 수 있으며 <악보 2>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알 수 있다.

33) 전통적으로 12현의 산조가야금은 독주의 형태가 많아 고정 음고로 연주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특히, '본청' 이라고 불리는 제6현은 가야금 연주자의 성향이나 악기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 굉장히 유동적이다. 현대에 와서 서양식의 오선보로 연주를 할 때도 대금 청에 맞추어 조율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G장조나 C장조로 악보집에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장조로 기보해놓고 연주할 때는 실음이 완전 5도 아래이며, C장조로 기보해놓고 연주할 때는 실음이 단3도 위로 연주된다. 반대로 실음보다 5도 높게 기보되거나 단3도 아래로 기보된다. 전통적으로 가야금을 학습해 온 연주자들은 현대곡을 제외하고 전통곡에서 조표보다는 가야금의 구성음 간의 이해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옥랑과 수동의 사랑놀이Ⅱ에서는 거문고가 연주된다. 첫 번째 장단의 시작음은 F본청 계면선율로 시작하며, 같은 음을 반복하면서 남성적이고 우직한 거문고 특유의 성음을 강조한다. 12분 25분부터 시작하여 약 3분간 지속되는 중모리, 자진모리 가락은 <악보 3>, <악보 4>와 같다.

<악보 3> 김윤덕의 거문고 허튼가락 중모리

연주 김윤덕
 채보 김민지

♩ = 70 거문고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101-103쪽 참조.

<악보 4> 김윤덕의 거문고 허튼가락 자진모리

♩ = 100 거문고 허튼가락

<악보 3>의 허튼가락에서는 도입부 도시-미-시미-미로 연주를 시작하며 도-시로 중지하는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B본청 계면조의 음계를 지니고 있어 F#을 강하게 떨고 D->Db음은 꺾는 형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윤덕의 거문고산조 중모리에서 이 허튼가락이 존재한다. 가락의 비교는 <악보 5>와 같다. 선율과 출현음에서 김윤덕 특유의 음악 어법이 드러난다. 더욱이 리듬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선율과 선법에 있어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악보 5> 김윤덕의 거문고 허튼가락과 지정된 김윤덕류 거문고산조의 가락의 비교

| | |
|------------------------|--|
| 김윤덕의 거문고 허튼가락 9~16마디 | |
| 9 | |
| 13 | |
| 전송되고 있는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중모리 | |
| 4 | |
| 5 | |
| 김윤덕의 거문고 허튼가락 25~32마디 | |
| 25 | |
| 29 | |
| 지정되고 있는 김윤덕류 거문고산조 중모리 | |
| 32 | |
| 33 | |

3.2.3. 무령의 악행

무령은 계속해 등장하여 옥량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진다. 무령이 다녀간 수동의 집에서 구슬픈 거문고 소리가 이어진다. D본청 계면조 구성되어 있으며 첫 음D로 시작해 전체 A-B-D-E-F#의 틀로 연주된다. 가야금 진양조 허튼가락³⁵⁾은 다음 <악보 6>과 같다.

35) 전통적 가야금 기보법을 따라 실음은 완전 4도 아래 음이다.

<악보 6> 김윤덕의 가야금 허튼가락 진양조

♩. = 30

연주 김윤덕
채보 김민지

7

13

19

25

31

위의 <악보 6>은 진양조 6박을 기본틀로 하여 36박을 전체 이루고 있다. 본청 G음은 기본으로 차분하게 중심음을 잡고, 완전 4도 아래 D음을 떨어준다. 이어서 구슬픈 거문고 가락이 26분 36초부터 27분 24초까지 연주되며 중모리와 자진모리 장단으로 연주한다. 필름상태가 좋지 않아 장면이 끊기고 전체 선율이 명확히 들리지 않지만 F본청 계면조 선율로 약 45초간 이어지며 구성음은 F-G-Bb-C-Db으로 추정된다. 무령의 아버지, 김진사가 서울에 일이 있어 출타할 때는 영산회상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군악이 이어진다.³⁶⁾

36) 군악은 주로 궁중行樂으로 1분에 120정도의 쾌활한 진행으로 연주된다. 피리와 해

옥랑의 어머니는 무령에게 비단을 받고 옥랑과의 혼인 약속을 하고 왔지만 옥랑의 아버지는 비단을 태우고 김진사를 반대한다. 이 때 김운덕의 가야금 가락이 32분 20초부터 32초까지 약 10초가량 이어지지만 선율이ragi보다는 장단으로 맺는 형식이 주된 음형을 이룬다. D음으로 시작해 Bb본청의 계면조의 출현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이 전환되고, 김진사네 하인들이 수동을 잡아 가두려고 하지만 수동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 긴박한 장면이 양청도드리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슬픈 아쟁의 선율이 이어진다. 아쟁은 특별한 선율이ragi보다는 아래 3개의 하청으로 길게 허튼가락을 이어가며 슬픈 감정을 클라이맥스로 이끌어간다. 37)

3.2.4. 사랑의 결실

들판에서 옥랑의 아버지를 만난 수동은 결혼을 허락받고, 혼인 장면에서 장구, 단소, 태평소, 소고, 무용의 자진모리의 흥겨운 시나위 연주가 매우 큰 음량으로 Eb본청 경기 시나위가 4분간 이어진다. 사람들의 웃는 모습과 장난 섞인 몸짓이 화면에 담기고 옥랑과 수동은 냉수를 떠 초례를 지낸 후 마을을 떠나 도망친다. 43분 49초부터 46분 49초까지 약 3분간 이어지는 이 곡은 대금 독주곡을 청성곡³⁸⁾과 상령산³⁹⁾ 풀이를 모티브로 연주자 개인이 즉흥가락을 연주한다. 여기서 ‘청성(淸聲)’은 전통음악의 음계 중 가운데 중성보다 높은 음역대를 의미하며, 청성

금, 대금의 선율이 도드라진다.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느낌을 제시한다.

37) 아쟁은 장단이 없는 무장단 D본청 계면조로 짜여져 있으며 A음으로 시작해 Tempo Rubato로 연주된다.

38) 청성곡은 가곡 한바탕의 마지막 곡인 태평가의 변주곡으로 대금의 독주곡으로 널리 연주된다. 잔가락과 기교가 돋보이며 그윽한 대금의 멋을 느낄 수 있다.

39) 영산회상 중 가장 첫 장이며 느린곡이다. 긴 호흡과 완만한 선율을 바탕으로 선비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연주자들의 호흡과 상당한 기량을 필요로 한다.

곡은 대금 독주곡의 대표곡으로 꼽힌다. 그러나 영화 속의 청성곡은 저 취음역대로 평조 분위기를 살려 F-Bb-Eb의 스케일을 두고 연주한 것으로 사료된다.⁴⁰⁾

이후, 멀리 도망가는 모습에서 천년만세 중 우조가락도드리⁴¹⁾가 연주되는데, 양금,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장구의 편성으로 연주된다.⁴²⁾ 첫날밤을 치른 수동과 옥랑은 잠시 행복한 한 때를 보낸다. 51분 23초부터 피리와 대금, 장구의 악기로 연주되며 A음을 낮고 빠르게 떨며 F#본청으로 경토리⁴³⁾와 수심가토리가 섞인 형태의 선율이 연주된다.

3.2.5. 수동의 죽음

그들을 쫓아온 김 진사의 하인들과의 추격 장면에서는 거문고의 선율을 통해 긴장감을 자아낸다. 연주되는 거문고 가락은 Bb본청의 구성음을 지니고 있으며 F를 굵게 떠는 계면조 선율을 따르고 있다. 허나 선율적 요소보다 리듬과 거문고의 음색 부분이 강조된다.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어지는 이 선율은 3소박에서 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 서양음악에

40) 전화인터뷰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2명의 대금 연주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이수자에게 사전에 영상 속 음원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주었다. 전화인터뷰는 2022년 7월 30일 오후 4시 28분~40분까지 약 10분정도 진행되었으며 이 밖에 2022년 7월 29일에도 대금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1명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음원을 전송하였다. 이들은 모두 음원 속 음악은 '상령산 풀이와 대금 독주곡 청성곡에 대한 모티브로 연주자가 즉흥연주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굉장히 많은 듯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41) 천년만세의 3곡 중 3번째 곡으로 평조선법(平調旋法) 가락에 의한 도드리이다. 대표적인 당악계통 음악인 '보허자(步虛子)'에서 파생한 것으로, '천년만세'의 두 번째 곡인 '양청도드리'를 변주한 음악이다. 한 장단은 12박자이고 양청도드리에 비하여 중후하고 유려한 맛이 느껴진다.

42) 46분 50초부터 47분 46초까지 약 50초간 선율이 이어진다. 주목되는 것은 우조가락도드리의 1정간의 3소박(J.)의 리듬이 아닌 2소박 박자형(J) 리듬형으로 빠르게 연주되며 이색적인 변화를 주었다.

43) 특히 종지형에서 경토리의 솔-라-도-레-미와 같은 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 주로 사용되던 2소박을 도입하여 조급하면서도 규칙적인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다. 자진모리 장단의 기본 리듬형태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리듬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극 장면의 긴장과 이완, 지루함을 탈피하였다. 총 19장단이며, 후반부에 편집으로 음악이 갑자기 끊긴다. 속도는 ♩.=100정도이며 선율과 리듬은 <악보 7>과 같다.

<악보 7> #5. 수동의 죽음 - 무령 하인과의 추격장면

♩.= 100 거문고

연주 김윤덕
채보 김민지

강조되는 에미올라 리듬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a guemungo in a key of three flats (B-flat major/D minor) and a 12/8 time signature. It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has a red box around the first four measures, with the text '강조되는 에미올라 리듬' (Emiola rhythm that is emphasized) written above it. The score includes various rhythmic markings such as accents and slurs, and measure numbers 5, 9, 13, and 17 are indicated at the start of their respective staves.

수동은 그 과정에서 멧돌고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붙잡혀 오는 옥랑을 발견한 옥랑 아버지(막쇠)는 무령 하인을 죽이고 옥에 갇힌다. 수동의 어머니는 수동이 죽었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소리가 이어진다. 무령은 살인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옥랑과의 혼인을 요구하고 결국 혼인을 허락한다. 쫓아온 수동은 무령을 죽이려하지만 옥랑이 무령과 그냥

결혼하겠다는 말에 수동은 분개하고 그 마음은 불타는 나무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무령과 수동의 결투가 이어지고 부상을 입은 무령을 보고 화가 난 김진사(무령의 아버지)는 수동을 잡으러 간다.

작은소리로 태평소의 꼭두각시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 김진사가 마을을 돌며 수동의 집을 찾아가는데 소리가 극적으로 커진다. 더불어 마을에는 탈춤과 가면극, 나발연주, 태평소, 꼭두각시 놀이의 인형극⁴⁴⁾의 연희가 꽤 오랜 시간 스크린에 담긴다. 반면, 수동은 옥량이 자신을 거절하고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목을 매고야 마는데 아쟁의 구슬픈 가락⁴⁵⁾이 마치 수동 어머니의 울음처럼 느껴지고 구슬픈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리고 수동의 시체를 묻는 장면인 1시간 25분 23초경부터는 남성의 소리가 이어진다. 느린 곳거리 장단의 D본청으로 ‘어유와 달구지, 어유와 달구지’ 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총 8장단 정도 지속되나 4장단 이후 의도적으로 급격히 작아지기 때문에 흐릿하게 들린다. 가사와 장례를 치르는 장면으로 추론하건대 일반적인 녀(死靈)굿과 마찬가지로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진도 씻김굿’의 한 절차의 ‘씻김’과 관련된 소리로 보이며 사설은 아래 <표 2>와 같다.

44) 박혜리나, 김민지(2019), 「지영희 무용음악 연구-창작음악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45집, 한양대 우리춤연구소, 81-82쪽. 1937년 정해시, 김덕진, 한성준을 중심으로 연주한 곡이 지영희에게 전달되어 세련된 <갈가보다> 라는 곡으로 탄생되었다. 이는 추후에 <꼭두각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45) 아쟁의 소리는 G본청 계면조로 구성음이 이어지고 명확한 선율이라기보다 어머니의 따라 이어지는 음의 연결이라 함이 정확하겠다. D-G-A-Bb-D까지의 음이 사용되었다. D음은 굽은 농현으로 표현하고, G본청은 중심음, Bb-A는 독립적으로 출현하기보다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표 2> #5. 진도 씻김굿과 남성의 소리 사설비교

| |
|--|
| 진도 씻김굿 중 길뒹음 소리 사설 |
| 어너 어너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화님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저 건너 안산이 북망산이로구나 나무야 해 나무나무 나무야 세왕산 가자시고 나무아미타불 |
| #5. 수동의 죽음 - 남성의 소리 |
| 어유와 달구지 어유와 달구지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건너 안산이 북망이로다 어유와 달구지 어유와 달구지 |

영혼이 이승에 맺힌 원한을 씻고 극락에 가도록 한다는 뜻을 지니는 이 소리는 진도 씻김굿 중 길뒹음 소리에 유사한 사설을 지니고 있으며 #5. 수동의 죽음-남성의 소리는 육자배기토리 계면조 선율로 진행된다.

3.2.6. 옥랑의 혼인행차와 죽음

옥랑은 수동이 죽은 줄 알고 체념한 상태로 무령과 혼인을 준비한다. 무령이 준비한 혼인 가마에 올라타고 그를 따르는 악사들이 신명나깨 음악을 연주하며 행차를 이어간다.⁴⁶⁾ 호쾌한 선율은 가면극, 청사초롱, 장구와 더불어 흥겨운 혼례를 나타낸다. 수동의 어머니는 그 길에 수동을 묻고 서성인다. 그 길에 혼인 행차가 지나가자 혼인행차를 돕는 모든 일행의 발이 묶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틈을 타서 행차를 막고 수동의 어머니가 가마로 입구에서 옥랑을 찌른다. 음악은 갑자기 멈추게 되고 옥랑은 쓰러지며 수동의 무덤으로 가 옆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46) 태평소가 중심이 되어 Eb본청 경기시나위 가락이 이어진다. 첫 음 F-G로 시작하며 전체 선율은 Bb-C-Eb-F-G로 짜인다.

3. 음악과 서사간의 유기성

김기영 감독의 영화 <양산도>는 음악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영화 전체에 전통음악을 사용해 관객들이 감정적 몰입을 도왔으며 서사구조와 음악의 결합은 영화 즐거움을 매우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미적승화를 도왔다. 음악과 서사적 내용간의 유기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등장인물의 관계도

영화 <양산도>에서의 주인공은 옥랑과 수동, 그리고 무령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신분의 차이가 있다. 옥랑과 수동은 조선 후기의 비교적 신분이 낮은 인물이다. 그러나, 무령은 한양에서 돌아온 김진사의 아들이자 신분이 높은 양반집 자제이다. 영화 속 음악을 살펴보면, 무령과 무령의 아버지(김진사)가 등장 할 때는 속도가 느린 진양조, 중모리 장단의 선율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의 배경음악으로는 거뜬한 속도가 항상 사용되어 현실적으로 한이 많고 소박함과 인고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인물 간의 신분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며 원초적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수반되기 때문이다.

반면, 수동과 옥랑, 그의 모친과 부친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대부분 계면조의 진양조 장단이거나 중모리 장단으로 일관한다. 이는 민속음악에서 속도가 느리면 매우 슬프고 가장 심각한 대목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⁴⁷⁾ 3음 이상 폭넓고 깊은 농현을 요하는 부분도 많으며, 빠른 장

47) <춘향가> 중 십장가·오리정 이별·옥중가, <심청가> 중 괘 씨 부인 유언·추월만정, <수궁가> 중 용왕 탄식·주부 모친 통곡, <적벽가> 중 군사설움타령, <홍보가> 중 박타령 등에 사용된다.

단에서 수반되는 표현들보다 많은 감정들을 담을 수 있어 옥랑과 수동의 처한 슬픈 현실을 잘 담아냈다고 할 수 있겠다.

3.2. 사건의 극대화

영화에서 무령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와 사건의 현장감을 돋우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리듬과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되는 음악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영화에서 사용된 독특한 사건의 극대화 방식이다. 특히, 전통음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3소박은 동양사상⁴⁸⁾과 큰 관련이 있는데, 국악기와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통음악은 만-중-삭의 속도를 따르는 악곡이 많고 곡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점차 빨라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령이 등장하는 많은 부분에서는 인물의 감정선을 단절시키고, 공간에서의 탈피를 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재를 음악적으로 표현시키고 있다. 기존의 자진모리 장단에서 사용하는 3소박 4박자의 리듬이 아닌 한 장단 안에 2소박 6박자(♩+♩+♩+♩+♩+♩)의 리듬이 등장함으로써 긴장감을 형성하고, 중모리나 굿거리 장단으로 가벼운 흥겨움에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의 전환을 피하며 빠른 속도의 악곡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선율의 연주 방식은 명인 김윤덕이 산조를 창작할 때 주로 사용했던 ‘헤미올라, 당김음, 엇박’ 등 음악적 표현의 방식을 창작의 기조(基調)로 삼고 있다.

48) 동양사상적인 측면에서 숫자3은 음양의 원리가 고루 담겨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양수(陽數) 3은 봄을 알리는 삼월 삼짇날, 삼신사상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어린이들의 가위바위보, 삼세판 하는 씨름판에도 있다. 천지인(天地人)의 이념은 전통적 동양사상 속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3.3. 시대적 배경의 상징화

영화 <양산도>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후기이다. 국악사에서 조선시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남다른데, 궁중음악인 정악의 경계를 허물고 일반 서민들이 향유할 수 음악의 새로운 기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의 선비들은 유학의 교육관에 따라 굉장히 느리고 감정을 절제하는 음악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빠른 음악과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은 나쁜 음악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유교 윤리만을 강조하는 음악을 중시하다보니 모순도 발생하였다. 양반의 부조리함과 병자호란 등 전쟁 이후 중산층의 자본력이 더해지면서 음악의 옹고 그림보다는 다양한 음악들이 인정받고 쏟아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반계층을 익살스러운 풍자와 해학으로 대상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유와 일탈을 허용하였으며 민속악의 다양한 어법들이 널리 퍼지는 등 수준 높은 예술로서의 신명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억압받던 해소의 욕구와 유희적 놀이들을 통해 다양함이 혼재되어 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담아낸다. 조선 후기 크게 융성하였던 ‘판소리’를 비롯하여 ‘산조’, ‘허튼가락’, ‘민요’, ‘민속춤’, ‘가면극’, ‘씻김굿 소리’ 등을 통해 즉흥성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영화에서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이는 명인 김윤덕의 뛰어난 연주역량과 오랜 시간 학습된 음악적 산물로서 발현되었다. 이와 상충하는 시대적 배경을 서사적으로 표현할 때는 ‘궁중음악’을 사용하여 이들의 시대적 지위와 양반층의 유교적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윤덕의 허튼가락을 통해 신분의 차이로 겪게 되는 서민의 애환과 다양한 감정(희노애락)의 모습들을 증폭시켜 주었으며 양반과 서민층의 갈등은 음악적 변화(풍류음악 혹은 궁중음악-민속음악)로 대비시켰다.

특히 양반가의 등장에는 공통적으로 풍류음악과 궁중음악을, 수동과

옥랑의 서사적 이야기를 풀어낼 때는 민속음악에 주로 사용되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등 악곡의 진행에서 박자, 빠르기, 리듬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적인 집약체인 장단을 보여주었다. 조선 후기 혼란스러웠던 신분제(양반-중인-상민-노비)를 음악을 통해 나타내었으며 전통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음악의 장르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민속장단 사용까지 더불어 시대적 배경의 이해를 깊이 있게 도왔다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 풍류 및 민속음악의 명인 김윤덕(1918~1978)의 다양한 음악활동의 흔적 중 영화음악에 주목하였다. 영화 <양산도>속의 김윤덕 전통가락을 분석하여 음악적 특징과 서사구조의 유기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영화 속 다양한 음악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면에 김윤덕이 가야금과 거문고를 연주했다며 홍보됨을 통해 그가 당시 유명세가 있는 연주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영화 <양산도> 속 김윤덕의 가락은 가야금, 거문고를 중심으로 연주되고 있었으며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가락과 흡사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선율, 리듬, 특히 장단을 활용한 당김음 기법에서 상당 부분 흡사하며 이는 김윤덕이 음악창작을 위해 자연스럽게 10여 년 전부터 구사해온 음악 어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영화 속 김윤덕의 가락은 영화 속 장면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Bb본청, B본청, G본청, f#본청 등 다양한 청의 변화를 주어 서사적 흐름을 돋보이게 하였고 전체적인 주제인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한 가엾고 애달픈 사랑' 이라는 구슬픈 정서를 위해서 전체 '계면

조'로 악조를 통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영화 <양산도>는 입체적인 영화의 서사적 진행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감독의 세심한 연출력이 돋보였으며, 그 가운데는 김윤덕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면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이어주고, 중복되는 전통가락이 없도록 연주한 그의 음악적 재능은 현재 작품(곡)중심으로 제한되는 현대 연주자들의 연주력에 경종을 울린다.

최근 예술의 분야의 사조는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융합하는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 특히, 시대적 산물과 함께 다양하고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무용, 문학, 음악, 미술, 영상, 과학기술 등 앞 다투어 각 분야의 예술작업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악분야는 전통적 음악과 예술 자체의 고유성이 시대적 한계를 손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탓에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담론의 형성에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약 60년 전 예술가들도 창의적인 공유를 통해 수준 높은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미학적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윤덕 명인의 문화재 지정 10여 년 전 음악 어법의 실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다양한 근대 명인들의 가락을 분석하는 후속 논문을 기대해 본다.

| | |
|-------|-----------------|
| 투고마감일 | : 2022년 07월 31일 |
| 투고연장일 | : 2022년 08월 21일 |
| 논문투고일 | : 2022년 08월 19일 |
| 심사개시일 | : 2022년 08월 30일 |
| 심사완료일 | : 2022년 09월 08일 |
| 게재확정일 | : 2022년 09월 21일 |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042,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영희(李英熙, 1938~), 한국영상자료원 참고문헌 소장(<https://www.koreafilm.or.kr>), 검색일 2022.07.21. '양산도' 검색.
- 법제처 홈페이지, 법률 18157호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04.17.
- 영상비평플랫폼(<https://ma-te-ri-al.online/19721795>), 금동현, 『협잡꾼 당신 - 『김기영 평전』을 위한 단편』Vol.4.

2. 단행본

- 박현봉(1968), 「김윤덕 약력」,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39호』, 문화재관리국, 49-50쪽.
- 송방송(2007),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7-208쪽.
- 이효분(2004),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은하출판사, 101-103쪽.
- 황병기(1998),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이화여대 출판부, 11-12쪽.

3. 논문

- 강태경(2014), 「줄풍류 타령 군악의 거문고 가락 비교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68쪽.
- 권은경(2016), 「성금연 명인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1955~1975년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57, 한국음악사학회, 5-108쪽.
- _____ (2019), 「김윤덕 명인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62, 한국음악사학회, 5-58쪽.
- 금동현·이정숙(2019), 「김기영 영화미학 형성기 연구」82, 한국문학언어학회, 347-374쪽.
- 김성민(2010), 「심상건·강태홍·김죽파·김윤덕·성금연 줄풍류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120쪽.
- 김하은(2018), 「가야금산조 중 세산조시 형성과정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1-124쪽.
- 김혜림(2017),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264쪽.
- 박소라(2013), 「김윤덕류 가야금, 거문고산조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쪽.
- 박승희(2014), 「가야금산조 탈령제 분석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75쪽.
- 박혜리나·김민지(2019), 「지역회 무용음악 연구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 과학기술』45, 한양대 우리춤연구소, 75-99쪽.
- 신미란(2004), 「김윤덕 전승 향제줄풍류의 뒷풍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55쪽.
- 신민서(2016), 「김죽파·김윤덕류의 전승과정에 나타난 김창조계 가야금산조의 구성 양상」, 이화여대 박사논문, 1-17쪽.
- 신수연(2012),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와 거문고산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60쪽.
- 안민영(2018), 「김윤덕류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장단 음악형태 연구」, 세한대 석사논문, 4-24쪽.
- 유리(2009),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9-122쪽.
- 유영주(2012), 「거문고산조의 한갑득류와 임석운·김윤덕·김용실류 선율 비교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218쪽.
- 이에량(2020), 「서공철류·김윤덕류·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선율 비교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5-57쪽.
- 장지현(2016), 「김윤덕 가야금과 거문고 줄풍류의 선율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1-20쪽.
- 정부경(2016), 「장월중선과 김윤덕 가야금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4-30쪽.
- 홍은주(2009), 「김윤덕의 界面가락도드리 가야금 선율 연구」, 『한국전통음악학』10, 한국전통음악학회, 327-352쪽.

영화 <양산도> 속 명인 김윤덕의 전통가락 연구

- 서사구조와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

김민지·박혜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명인 김윤덕(1918~1978)의 다양한 음악활동의 흔적 중 영화음악에 주목하여 영화<양산도>속의 김윤덕의 전통가락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 속 등장하는 김윤덕 가락을 채보하여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고 서사구조와 함께 유기성을 논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속 등장하는 음악가 김윤덕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으며, 영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정도의 유명세를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가야금뿐만 아니라 거문고 연주를 통해 영화 전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 영화 <양산도>속 김윤덕의 가락은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가야금산조의 가락과 거문고산조로 전승되고 있는 선율과 리듬 부분에서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김윤덕이 음악창작을 위해 자연스럽게 10여 년 전부터 구사해 온 음악어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영화 속 김윤덕의 가락은 Bb본청, B본청, G본청, F#본청 등 다양한 청의 변화를 주어 서사적 흐름을 돋보이게 하였고 전체적인 주제를 고려하여 계면조 조성을 주로 사용하였다.

넷째, 영화 <양산도>는 입체적인 영화의 서사적 진행과 음악이 유기

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감독의 세심한 연출력이 돋보였으며, 그 가운데 김윤덕의 연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윤덕의 음악은 영화 속 서사구조에 따라 등장인물의 관계도, 사건의 극대화, 시대적 배경의 상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핵심어 : 김윤덕, 영화 양산도, 영화음악, 가야금산조, 김윤덕가락

■ Abstract

A Study on the Traditional Melody of Master

Kim Yoon-deok in the movie "Yangsang-do"

- Focusing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musical characteristics -

Kim, minji* · Park, haer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traditional melody of Kim Yoon-deok in the movie "Yangsang-do" by paying attention to film music among the traces of various musical activities of Kim Yoon-deok(1918~1978). To this end, Kim Yoon-deok's traditional melody appearing in the movie was collected to examin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discuss organicity along with the narrative struc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ition of musician Kim Yoon-deok in the movie was quite high and that he was famous enough to be actively used for promoting the movie. In addition, not only the Gayageum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but also the performance of Geomungo played a large part of the film.

Second, Kim Yoon-deok's melody in the movie "Yangsando" is very similar to the melody and rhythm of Gayageum Sanjo, which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currently,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1968,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a musical style that Kim Yoon-deok has naturally used for more than a decade.

Third, Kim Yoon-deok's melody in the movie made various changes in scale, such as Bb scale, B scale, G scale, and F# scale, highlighting the story in the movie, and using sad scale and atmosphere in music in consideration of sad stories.

last, the film "Yangsando" featured the director's careful directing skills so that the narrative progress of the three-dimensional film and the music could flow organically, and Kim Yoon-deok's performance occupied a large part of it. Kim Yoon-deok's music played a major role in the relationship of characters, maximizing events, and symbolizing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ccording to the narrative structure in the movie.

Key-words : Kim Yoon-deok, Movie Yangsando, Movie Music, Gayageum Sanjo, Kim Yoon-deok

